

“네팔 룸비니성역화에 관심과 지원을”

〈부처님탄생지〉

반기문 UN총장, 조계종 예방 환담
총무원장 자승스님 현장동행 검토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성역화불사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연임 확정 후 첫 한국나들이에 나선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인류 평화와 룸비니 성역화 불사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네팔 룸비니 성역화 불사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께 룸비니를 직접 방문하는 길에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동행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반 총장은 “지난 2008년 부처님탄생지인 룸비니를 방문했는데 1960년대 1차 성역화 불사 이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내년께 룸비니를 직접 방문해 성역화 불사를 논의할 계획인데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동행해주고 이후 룸비니 성역화 불사에도 한국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면 꼭 동행하도록 하겠다”며 반 총장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반 총장은 또 “평화 안보와 안정 개발, 인권보호가 유엔의 3대 목표이지만 평화 안보를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면서 “오랜 역사와 많은 신도를 갖고 있는 불교가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인류평화에 기여해주시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반 총장 부부와 일행을 맞이하며 UN 사무총장 연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5박 6일간의 짧은 방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방문해줘 감사하다”면서 “연임을 2000만 불자의 뜻을 모아 축하드린다”며 반 총장 일행을 반겼고, 반 총장은 “감사하다”며 합장했다.

이번 예방은 독실한 불자로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이어 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이뤄졌다. 반 총장은 지난 2006년 UN 사무총장 선출 뒤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자승스님을 찾아 환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9월 미국순방중인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을 통해 세계평화와 종교간 갈등 해소, 최극빈국 아동구호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지난 6월 반 총장의 UN 사무총장 연임을 지원하는 서한을 전하며 인연을 계속 쌓아갔다.

한편 이날 예방에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 부인 유순택 여사 일행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 위치한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당’에서 점심공양을 하며 한국전통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이날 환담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정만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김원수 UN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불교문화 보전 활용방안 모색

31일 대토론회 개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주최하는 한국 불교진흥을 위한 8월 대토론회가 오는 3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전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발제자로 나서 불교문화재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또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사)성보문화재연구원장 범하스님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영애 다함미디어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부처님탄생지 네팔 룸비니 성역화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사찰·단체도 ‘포교대상’ 가능하다

포교원, 범위확대…9월2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혜총스님)이 23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포교원은 오는 22일부터 9월2일까지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포교대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추천분야는 △계종포교 △지능포

교 △문화체육포교 △사회포교 △매체포교 △지역포교 등이며, 해당분야에 남다른 활동을 펼친 개인 및 단체 사찰에는 포교대상, 공로상, 원력상이 수여된다.

추천대상은 종단 스님 및 재가불자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이다. 재가불자의 경우 종단신도 등록을 마쳐야 하며, 특히 대상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포교대상운영에 관한 령’에 따라 사찰도 포상범위에 포함되면서,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가 5년 이상 된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단, 공로상과 원력상을 포함한 포교대상을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한 일반표창을 수상한 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소정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교구본사 주지,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및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비롯해 포교활동 공적서, 이력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포교원 포교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일은 10월 중이며,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여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내 종교는 대가대비교”

시인 김선우의 불교인연 이야기



고경스님 ‘독립유공자’ 선정

본지 보도 후 조명…“광복절 포상”



“종교인 대북지원은 통일한국에는 미주목”

기획좌담/인도적 지원의 의미와 통일

법전 중정세하 하안거 해제법서

사자후인지 여우 목소리인지

만행길서 스스로 점검하라

섭현귀성(葉縣歸省) 선사에게 분양선소(汾陽善昭) 선사가 절을 하자 이에 물었습니다. “그대는 조금 전에 어떤 도리를 알아차렸기에 나에게 절을 올렸는가?” “그것은 제가 바로 본분의 목숨을 던진 경계였습니다. 뒷날 이 말을 전해들은 경산지우(徑山智愚) 선사는 법사에서 주장자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봉황은 봉황을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는구나.”



도림법전

‘사자후’에 대하여 〈증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후무의설(獅子吼無畏說)이며 백수문지개뇌열(百獸聞之皆腦裂)이로다 사자의 포효처럼 두려운 상대가 없는 말씀이여! 모든 짐승이 듣고서 하나같이 뇌가 갈라져 찢어지노라.

덕산 선사는 누구라도 문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둘렀고, 임제 선사는 학인이 방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향을 내질렀습니다. 이런 사자후도 눈 어두운 자들은 여우 울음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보리심(菩提心)이 대사자후(大獅子吼)요, 대비심(大悲心)이 대사자후(大獅子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영가현각 선사의 이 법문을 듣는 순간 이것은 이미 뇌가 갈라져 찢겨지는 일입니다. 이것일까 저 것일까 하고 분별한다면 그 순간 여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사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생긴 별레가 사자살을 파먹듯이 내 마음 속에 작은 망상은 점점 커져 결국 나를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남자가 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다면 헛소리도 사자후가 될 것이요, 남자가 탐욕에 물든 견해로써 법을 듣는다면 설사 사자후라고 할지라도 여우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묘년 하안거 한 철 동안 정진한 힘은 해제 이후 경계를 만났을 때, 과연 사자후가 나오는지 여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만행길 위에서 스스로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아(獅子兒)는 등공반칙(騰空返轡)하고 준요자(俊鶴子)는 불연구과(不戀舊窠)로다 사자는 허공으로 뛰어올랐다가 몸을 되돌려 던지고 날쌔게 때는 해묵은 보금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구나.

2555(2011)하안거 해제일

지면안내

진관사 ‘태극기 碑’ 제막	3면
인각사 삼국유사 축제현장	5면
북한계 백제전장	
백양사 천진암 백암선원을 가다	7면
분단66년…북한사찰 사진전 개막	11면
정찬주의 오대산 가는 길	16면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활동과 전망	17면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 출자상조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해원금 및 환급기준 가. 표준약면 제15호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3연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원의 100% 환급 2.소비자 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출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초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초 방법 및 제초지역:주제적국내산동 다. 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지:오동나무(중국산)3~4.5cm * 화장지:오동나무(중국산)1.8~3cm 다. 차림의 종류 및 무로로 제공되는 차림거리 * 차림의 종류 - 오귀리무진 린킨케달리(2008년 이상) - 정외버스:현대 기아(2008년 이상) * 주차비:용-상물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거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서비스 제공 인력 * 프리미엄 (4명) *도우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종교개혁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1년 02월 28일 기준) 가. 상조관련 자산 : 397.9억원 나. 총 고객 현금의무액 : 355.9억원 다. 총 고객 현금의무액 대비 상조관련 자산 보유비율 : 112% *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효립회계법인) 5.고객불만금의 관리방법 고객불만금의 47.9%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